



# 정교회주보

제2577호

2026년 5월 17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바울로 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증언한 예루살렘. 이곳에서 사도들은 성령 안의 일치로 보편 교회의 초석을 놓았다.

## 부활 후 제6주일

(소경 주일)

성 안드르니코스과 성 이우니아  
사도 부부 (70인 사도)

(제5조 • 조과 복음 8)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 38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6,16~34 · 248
- 복음경 : 요한 9,1~38 ..... 102
- 성모송 .....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19회] 예루살렘 사도 회의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이방인 신자가 늘어나자, 일부 유대계 신자들이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 문제는 선교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바울로와 바르나바는 갈등을 해결하려 예루살렘으로 향했다.(사도행전 15,1-6)

회의에서 바울로는 선교 여행 중 목격한 하느님의 역사를 증언하며,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고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라며 바울로의 복음 선포를 지지했다. 예루살렘의 첫 주교인 야고보 사도 역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며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었다. 이로써 바울로는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사도직 권위를 공고히 인정받았다.

예루살렘 사도 회의는 교회가 유다교를 넘어 '보편 교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성령 안에서 함께 결정하는 공의회적 전통의 시초가 되었다.(갈라디아 2,1-10)

# 죽음과 부활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죽**음에 대한 문제는 삶의 관심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도 따르기에 삶과 죽음은 매우 밀접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의 생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 답하며 각기 종교화시켜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에게 여러 신비를 불러일으키며, 과장되거나 미신적인 상상을 통해 다양한 종교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른 종교라면 역사적 근거와 증거, 증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성서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수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제키엘 37장, 이사야 26장 12절, 다니엘 12장 2-3절, 요한복음 5장 28-29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등이 그러합니다. 이 모든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사실입니다. 물론 뚜렷한 역사가 있고 구름 같은 증인과 증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먼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1데살로니카 4,13-17)

그러면 부활한 후 육신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부활한 육신은 더욱더 완벽하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과 옷이 필요 없고 병과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추위와 더위로 고통을 당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 없고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마태오 22,30). 주님께서서는 부활한 후 의로운 사람들의

육신은 영광스럽게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마태오 13,43)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빛을 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의해 그 빛을 얻게 된 육신들이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이 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인들의 육신들은 모두 그 빛을 발하지만 그들의 거룩함의 등급에 따라서 서로 다른 빛을 발할 것입니다(1고린토 15, 41).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재림 때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인들과 죄인들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빛나는 육신으로 하느님의 나라에서 성인들과 천사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지만, 죄인들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악마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의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 고백성사를 통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각종 성사에 참여하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 교회와 영혼의 치유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병자로서가 아니라 고객처럼 교회에 옵니다. “나는 이것이 좋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배가 너무 길었다.” “설교를 너무 크게 말했다.” “나는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다.” 등과 같이, 교회의 예배를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판단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더 이상 치유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찾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고, 스스로 변화하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인내하라는 권고를 들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이나 영적인 식당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곪은 곳을 짜어 치료하고 상처를 소독하며 약을 바르고 붓대를 감기 위해 갑니다. 겸손함 없이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받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됩니다. 은총은 사람의 입맛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를 따라 역사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실 없는 위로와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거룩한 친교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냉담해진 것은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병원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의사도 그대로이며, 응급 상황을 포함한 모든 의학적 처치도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치료와 수술을 거부한다면, 병이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날마다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백성사와 성체성혈성사를 통해 교회가 베푸는 위로와 치유를 새롭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 축일 기간을 기쁨과 마음의 평화 속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 5월 20일(수)  
부활절 종례일
- \* 5월 21일(목)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부활절 종례일 저녁 예배  
5월 19일(화) 저녁 7시 30분

### ■ 부활절 종례 및 승천 축일 예배 안내

부활절 종례 예배와 승천 축일 예배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당은 19일(화) 저녁 7시 30분부터 부활절 종례 예배가, 20일(수) 저녁 5시에는 9시과와 승천 축일 대만과를 거행합니다.

### ■ 가평 수도원 철야예배

6월 12일(금) 저녁 8시부터 철야예배 및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추도식(4주기)이 거행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5월 30일(토)까지 각 성당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 ■ 수요일 영성 강론 및 토요일 주일학교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Zoom)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함께 뿌르피리오스 성인의 저서 『향기로운 삶과 말씀』을 읽으며 그 깊은 뜻을 배워갑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통역됩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온라인(Zoom)을 통해 대교구 주일학교 모임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Zoom 링크는 각 성당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는 31일(오순절 주일),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 ■ 서울 성당 결혼성사

지난 9일(토),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로만 대신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크리스토퍼 보제의 집전으로 김주원 미론 & 서재은 바실리아 교우의 결혼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주님의 축복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 서울 성당 강원대학교 학생들 방문

지난 11일(월), 강원대학교 사학과 양희민 교수와 학생 20여 명이 성 니콜라스 대성당을 방문하여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로부터 정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성의 샐터



## 주님을 따르지만...

한 수도자가 독백하였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고난을 공부한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마저도 인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